



忠北大同門會報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제50호

발행인 : 조천희 편집인 : 어강석



지역의 뿌리로 70년, 세계로 꽃피울 100년



발간사 존경하는 20만 충북대학교 동문 여러분!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장 조 천 희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인해 최근 2년 동안 우리의 일상엔 예전처럼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해야만 했고, 일상생활도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하느라 혼란스럽습니다.

지난해 제31대에 이어 제32대 총동문회장을 다시 맡으며 동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해 총동문회의 발전과 모교의 도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준비했던 사업은 무산되었고, 산하 동문회 및 지회와의 연계도 어려워져 뜻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모교를 위해 총동문회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야 한다는 신념은 여전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상 시도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정신은 한결같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동문회보의 복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동문회보는 지난 1986년 8월 25일 창간호를 발간했으나 2014년 12월 22일 제49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었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문 간의 소통방식이 바뀌면서 새로운 소통방식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애석하게 실현되

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로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되고, 온라인 대면에도 한계를 느끼면서 동문 간의 소통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고, 동문회보의 복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모교가 준비하는 각종 기념사업 소식을 공유하며, 모교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통로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 우리 충북대학교는 개교 후 70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거점 국립종합대학교이자 세계를 향해 열린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개교 70주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동문 모두가 가져야 할 자긍심이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정의·개혁이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이룩한 개신벌에서의 영광은 20만 동문 여러분의 커다란 관심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동문 여러분! 복간하는 동문회보가 어려운 시기에 동문 간의 소식이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고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마당으로 활용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모교와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6월부터 동문회보 복간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주신 어강석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대학교 총동문회는 모교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존경하는 충북대학교 선·후배 동문 여러분!

충북대학교 총장 김 수 갑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례 없는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진행하던 강의도 이젠 비대면 화상강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동문들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던 체육대회며 각종 친목 모임을 전혀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동문 여러분의 따뜻한 정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에서 그간 발간이 중단되었던 '충북대동문회보'를 다시 이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 확인할 수 없었던 여러 동문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참으로 반갑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북대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총장으로서, 또 충북대동문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충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학이 처음 설립된 1951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약 30여 년간은 대학의 기틀을 갖추는 대학 형성 기간이었고, 1978년 종합대학으로 확대·개편된 이후 지금까지의 40여 년은 양적 성장을 통해 지역 중심대학으로 성장해 온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0년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이 배출한 인재들은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정계, 관계, 교육계, 경제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에 포진하여 지역과 국가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학은 지역 거점 중심 대학에서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의 중추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임기 동안에 우리 대학이 글로벌시대의 국가중추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충북대 100년을 향해 무한히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개신가족 구성원 및 20만 동문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

70년을 이어온 충북대학교의 역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앞으로 100년을 넘고, 또 다른 100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충북대학교의 눈부신 발전은 모두 동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동문들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 갈 충북대학교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다시 발간을 시작하는 동문회보가 모교와 동문들을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충북대학교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함으로써 동문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것이며, 또한 동문들이 보내 주시는 뜨거운 격려로 모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문회보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천희 총동문회장을 비롯하여 편집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만 충북대학교 동문들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목 및 교화 선정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대학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느티나무와 미선나무꽃을 교목(校木)과 교화(校花)로 선정했다. 큰 그늘을 만들어 많은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느티나무처럼 충북대 역시 커다란 품으로 지역을 품고, 천년수인 만큼 학생들과 구성원, 동문들이 큰사람으로 성장하고 학교가 오래도록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정했으며,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는 미선나무꽃의 꽃말처럼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피어나는 충북대학교를 발판으로 삼아 학생들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번 교목과 교화 선정은 농업생명환경대학과 협의를 거쳐 교목은 ‘느티나무’로 단일 추천을 받았고, 교화는 미선나무꽃, 노각나무꽃, 가침박달나무꽃, 백목련 등을 추천받았으며, 2021년 6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재학생 및 교직원, 동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3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그결과 ‘미선나무꽃’이 34.7%(453표)로 선호도 1위를 차지하여, 충북대학교를 대표하는 교화로 선정되었다.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로 진천, 괴산, 영동의 미선나무 군락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귀중한 수종이다. 1~1.5미터 정도로 자라는 관목이며 꽃향기가 매우 좋다. 충북대는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도서관 옆 부지에 교목과 교화인 느티나무와 미선나무꽃을 심어 ‘개교 70주년 기념동산’을 조성한다.



[교화:미선나무꽃]



[교목:느티나무]

70주년 기념 개신동산 조성

충북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솔뫼 옆 공원에 기념식수와 조형물 등을 세워 기념동산을 조성한다. 이 기념동산은 학내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곳에는 도종환 국회의원의 70주년 헌시를 음각으로 새긴 시비도 세울 예정이다.

도종환의원은 우리 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73학번으로 『고두미 마을에서』, 『접시꽃 당신』, 『내가 사랑하는 당신』 등 깊은 자기 율림의 세계를 그려낸 훌륭한 시인으로 인정받았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하여 현재 3선 의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당당한 중심

도종환 (국어교육73)

산비탈에 자라는 늦가을 초목처럼
스산하던 저녁이 있었다
누구도 이름 불러주지 않는 야산처럼
묵묵히 변두리를 지키던 날도 있었다

폭염의 날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혹독한 눈보라에 쓰러지고 말았다면
우리는 아름답리 숲을 이루지 못했으리

폭우가 쏟아지던 청춘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꽃밭을 이루지 못했으리

별자리 하나하나 우주의 중심이듯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이곳을
당당한 중심으로 바꾸지 못했으리

새로운 대륙을 향해 무리지어 날아오르는
새떼들 힘찬 날개처럼 약동하지 못했으리

다시 비상하는 칠십 년의 오늘
신선한 물방울을 튕기며 출발하는 오늘

- 충북대학교 개교 칠십 주년에 부쳐 -

타임캡슐 매설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고 후학들에게 우리 대학의 현재까지의 역사적 자료를 남기기 위해 타임캡슐을 제작한다. 이 타임캡슐에는 개교 70주년 기념사, 30년 후 구성원에게 보내는 메시지, 2020년 개신교지 책자, 2021학년도 총학생회 임원명단 및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학생증, 제8차 종합발전계획, 충북대

학교 교기, 2021학년도 충북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총동문회 회원명부, 임원명단, 축사, 동문회보 등 대학 변천의 모습 및 현재의 모습, 현 구성원이 후대 구성원에게 보내는 메시지, 기타 대학 발전 관련 자료들을 담아 보관한다. 이것은 2051년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에 개봉할 예정이다.

CBNU 스포츠센터 개관

충북대학교 개교 70주년에 맞추어 CBNU 스포츠센터를 개관한다. 충북대 소운동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규모 1만 2,100㎡에 총사업비 264억 원이 투입되었다. 지난 2018년 7월 착공되어 이번에 개관하게 된 것이다. 지하 1층은 스포츠과학센터로 체력측정을 통한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관 1층에는 4개의 코트를 갖춘 스쿼시장, 7개의 25m 레인을 갖춘 수영장, 그리고 스크린 12개 타석을 갖춘 골프연습장이 있다. 2층에는 집회 및 실내 체육을 위한 900여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이 마련된다. 또한 별관 3층과 4층에는 유

산소 운동 및 근력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장이 마련되었다. 이 시설은 충북대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대학으로서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 복지, 문화 공간 등을 공유해 운동 공간 부재, 실기 실습장의 노후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학교 구성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관리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마련되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이 센터가 대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과 학교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BNU 스포츠센터 조감도]

박물관, 개교 70주년을 맞아 동문 영상 및 구술사 자료 확보에 나서

우리 대학교 박물관은 개교 70주년을 맞아 동문들이 재학 중 경험한 학교생활과 각종 소소한 이야기거리를 수집하여 영상 및 구술사 자료로 기록하고 있다. 각 단과대학별로 선정한 동문들을 재학생들이 직접 찾아가 '충북대학교와 나'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25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학교사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를 수집했다.

1960년 4.19 의거 당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줄로 알았는데, 청주지역 시위에 입학과 60학번 정상혁 동문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찾아냈다. 1988년 9월 개신축전 기간 중 중앙도서관 앞에서 멋진 프로포즈로 여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인공도 찾아냈다. 바로 사회학과 82학번 윤영국 동문과 85학번 윤영욱 동문의 러브 스토리이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충북대학교 박물관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동문들에 대한 인터뷰는 계속 진행할 것이고, 수집한 영상과 구술사 자료는 개교 70주년 기념사업과 학교사 전시관 전시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실 이전

충북대학교 총동문회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조성되는 역사관 건물(N19동)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총동문회 사무실은 2000년 1월경에 본관 7층에 자리잡아 지금까지 동문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되었으나 새롭게 조성되는 학교 역사관 건물 2층에 새롭게 등지를 틀 예정이다. 학교 역사관 건물은 과거 제2본관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이며, 충북대학교 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동문들에게 상징적인 건물이다.

역사관 2층에 자리잡는 동문회는 총동문회장 집무실, 총동문회 사무실, 회의실 및 동문 명예의 전당으로 구성되면 향후 동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소통과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다.

재단법인 충북대학교 동문회장학재단

- 2021년도 장학생명단 -

구분	성명	학과
간부학생	오태영	정치외교학과 4학년
모범학생	류경민	경영학부 4학년
예체능생	최진아	체육교육과 3학년

충북대학교 70년사 편찬

충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충북대학교 70년사』를 편찬한다. 『충북대학교 70년사』에는 우리 대학이 1951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주농과초급대학으로 설립하여 종합대학인 충북대학교로 승격되고, 오늘날 지역 거점대학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70년의 면면한 역사를 집약하고 빠짐없이 정리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70년사 편찬에는 사학과 박결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5명의 위원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책의 구성은 제1부 역사편, 제2부 현황편, 제3부 자료편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스토리텔링 70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졸업생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다.

역사는 과거로부터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인식하고, 다가올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대학교 70년사』 편찬은 지난 과거를 조감하고 살펴봄으로써 이를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충북대학교의 발전적 토대가 될 것이다.



충북대 · 충남대 E-스포츠 교류전에서 승리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대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열었다. 7월 21일 충북대와 충남대 총학생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E-스포츠 교류전을 개최했다. 이번 교류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캠퍼스 생활이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한 환경에서 가상현실 공간에서 펼쳐지는 실감 나는 경기로 큰 호응을 얻었다. 김수갑 총장도 처음 열리는 교류전에 "충대는 충북대"라며 응원의 인사를 건넸고,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경기를 응원하며 새로운 활력과 소속감을 느꼈다. 이번 교류전은 가상현실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로 진행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각 대학에서 50명의 학생들이 선수로 참여하였고, 충남대 총학생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해 큰 인기를 끌었다. 3판 2선승제로 치러진 경기는 치열한 접전 끝에 충북대가 2대 0으로 이겨 첫 충대 교류전의 승자가 되었다.



이번 대회는 참가한 선수 외에도 이들을 응원을 하기 위해 모인 많은 학생들이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실시간 댓글 참여 등으로 응원하고 함께 게임을 즐겼다. 충북대 오태영 총학생회장은 "50명의 대표선수가 열심히 경기에 임해준 덕분에 충북대학교를 신나게, 목청껏 응원할 수 있었다.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양 학교의 응원 열기를 확인할 수 있어 기쁘고, 코로나19로 만날 수 없던 학우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이라서 더욱 뜻깊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충북대와 충남대는 이번 충대 교류전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학 교류전을 진행해 양 대학의 교류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충북지역본부장**
염기동(수학83)
1월 1일 NH농협은행 제41대 충북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장**
서덕문(무역84)
1월 1일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이병만(토목83)
1월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김성만(임학84)
1월 평창국유림관리소장으로 취임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충북지역협력단장**
장병훈(토목86)
1월 한국수자원공사 충북지역협력단장으로 취임하였다.



**청주시 의사회장
취임**
양승덕(의학85)
1월 청주시 의사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청원경찰서장
이우범(국문82)
1월 25일 제63대 청주청원경찰서장으로 취임하였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김철문(법학85)
1월 25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부임하였다.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과장**
이준배(농화81)
1월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과장으로 부임하였다.



**KB국민은행
청주지점장**
이영노(컴퓨터공86)
1월 22일 KB국민은행 청주지점장으로 부임하였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이범석(행정85)
2월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으로 부임하였다.



LG생활건강 상무
강연희(공업90)
2월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젊은 인재로 LG생활건강 상무로 선임되었다.



**관세청
청주세관장**
신광민(사회87)
2월 18일 관세청 청주세관장으로 부임하였다.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조교수**
김완구(철학81)
3월 1일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강원도 지방중소
벤처기업청장**
이상천(기계87)
3월 12일 강원도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임명되었다.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조승연(대학원)
4월 인천의료원장으로 재직 중인 조승연 동문이 국민보건 향상 및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다.



**사단법인 한국로터리
청소년연합이사장**
변재경(체육교육75)
7월 1일 (사)한국로터리 청소년연합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국세청
동청주세무서장**
송영주(전자계산84)
7월 1일 동청주세무서장으로 부임하였다.



**대한체육회 남북체육
교류위원회 사무총장**
김두환(기계98)
7월 2일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과장**
안효풍(경제81)
7월 15일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과장으로 부임하였다.



**“돈과 운을 부르는
색채 명리학” 출판**
김동완(중문81)
“돈과 운을 부르는 색채 명리학”을 출판하였다.



**충청북도
학생수련원장**
오세경(농화84)
9월 1일 충청북도 학생수련원장으로 부임하였다.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
이종수(대학원)
9월 1일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으로 부임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
김규전(토목82)
9월 2일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로 임명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신홍섭(경영84)
9월 2일 제15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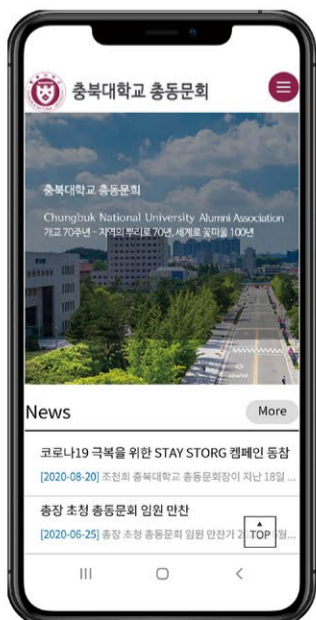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노성호(농경82)
9월 2일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광주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남승진(건축공79)
9월 6일 광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로 임명되었다.

김윤영(중문84)	(주)세인리소스 대표이사
박철완(중문85)	청주 흥덕구청장
신성진(중문86)	수협중앙회 충청본부장
이종연(중문86)	HMM(주) SWAT실 부장
김용권(중문87)	세스코 중국상해법인장
김기중(중문87)	(주)부영 해외사업부 부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 리뉴얼 및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가 2000년 1월 30일 개설된 이후로 몇 차례에 걸쳐 업그레이드 되어 왔으나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조천희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전면 리뉴얼하고 스마트 시대에 맞는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오픈하게 되었다.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는 2021년 9월 1일부터 www.cbudm.org로 접속할 수 있다.

동문 국회의원 환영회

제21대 국회의원 환영회를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수갑 총장, 엄태영(제천·단양), 도종환(청주 흥덕), 이장섭(청주 서원), 조천희 총동문회장



* 위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실시한 행사임.

충청북도청 [7월 1일]

- 박해운(금속82) 제천시
- 최경환(건축공81) 보은군
- 이 호(토목84) 영동군
- 홍순덕(계통83) 증평군
- 박기순(행정84) 괴산군
- 민영완(국문84)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조경순(중문85)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 음치현(토목81) 균형건설국 도로과장
- 김광래(원예84)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이종식(토목82)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장
- 김홍식(토목83) 의회사무처 건설환경소방전문위원
- 용미숙(농화87) 과산유기농엑스포조직위(기획본부장)
- 전재수(행정84)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 전도성(대학원) 서울세종본부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장·장학관> 9월 1일

- 윤인중(수학교육80) 교육문화원장
- 오영록(영어교육81) 국제교육원장
- 김종렬(수학교육81) 청주교육지원청
- 노영임(국어교육82) 단재교육연수원
- 신병학(과학교육82) 청주교육지원청
- 오남진(수학교육84) 진천교육지원청
- 연정흠(국어교육79) 현도중
- 정구영(영어교육81) 주성고
- 이장성(영어교육81) 상당고
- 유재호(영어교육82) 무극중
- 박정윤(영어교육83) 송절중
- 이광복(역사교육78) 청주중앙여고
- 김명철(역사교육80) 금천고
- 김원겸(사회교육79) 연풍중
- 박정애(사회교육83) 옥천여중
- 이은자(윤리교육83) 복대중
- 신명수(윤리교육84) 괴산고
- 김정희(수학교육82) 수곡중
- 신배식(수학교육82) 봉명고
- 박대우(수학교육84) 각리중
- 구윤모(과학교육81) 산남중
- 지성훈(과학교육83) 괴산북중
- 이평호(과학교육83) 의림여중
- 홍석중(과학교육83) 음성여중

<교육행정> 7월 1일

- 서영자(대학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 김종관(토목80) 교육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부장
- 이규순(국어교육81) 국제교육원 총무부장
- 유신겸(전기81) 중원교육문화원장
- 이찬동(대학원)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장
- 주병호(대학원) 교육도서관 관장
- 박진동(사회88)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팀장
- 김성일(경제84) 영동고 행정실장
- 김현욱(농경84) 음성고 행정실장
- 양희찬(농경84) 제천제일고 행정실장
- 김순이(회계88) 진천고 행정실장
- 전지영(무역88) 충주예성여고 행정실장
- 노연호(수학82) 각리초 행정실장
- 이혜순(영문83) 교육문화원 총무과장
- 박정희(대학원) 해양교육원 제주분원장
- 전태영(연초83) 상당고 행정실장
- 최해경(식품87) 양청고 행정실장
- 노대열(농생물81) 충주공고 행정실장
- 김영섭(농공82)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 노재경(대학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과장
- 정상현(건축공80) 충북에너지고 행정실장
- 반옥훈(대학원)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팀장
- 이원일(토목85)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팀장

<교감·장학사> 9월 1일

- 민효숙(국어교육82) 청주동중
- 천정희(국어교육84) 현도중
- 마낙금(윤리교육84) 무극중
- 박상익(미술교육84) 금천중
- 이규태(과학교육81) 대금고
- 박태무(과학교육84) 청주중
- 조영자(과학교육84) 탄금중
- 이윤미(과학교육86) 가경중
- 정해숙(과학교육87) 서전고
- 이득중(기계84) 청주농고
- 김미순(수학교육92) 충주교육지원청
- 서현원(수학교육93) 제천교육지원청
- 김인구(영어교육98) 영동교육지원청
- 임창성(농공97)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청주시청 [7월 1일]

- 조용진(행정82) 기획행정실장
- 이상원(건축공81) 상당구청장
- 이현석(사회86) 푸른도시사업본부장
- 박종웅(토목81) 환경관리본부장
- 이근복(건축공82) 주택토지구장
- 박봉규(농화84) 기획행정실 안전정책과장
- 김응오(국문85) 재정경제국 경제정책과장
- 장우원(영문84)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
- 연제완(연초83) 청주시립도서관장
- 현충호(토목84) 흥덕구 강서2동장
- 강호경(화공83)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장
- 유정호(농화81) 서원구 현도면장
- 이종수(사학83) 흥덕구 오송읍장
- 김용규(임학85) 농업정책국 축산과장
- 여운석(환경공84)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장
- 임동천(토목82)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 송해화(토목82) 상당구 건설과장
- 임명수(경제84) 푸른도시사업본부 산림관리과장
- 이자우(수학86)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 박준희(토목83) 상당구 남일면장
- 이덕중(화학81) 서원구 사창동장
- 임채영(법학81) 흥덕구 봉명2·송정동장
- 정광중(건축공84) 서원구 건축과장
- 김성란(수학87) 서원구 분평동장
- 권용순(회계86)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 황근미(농화84)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 박제상(원예82)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 김민재(축산84)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장
- 정대수(농기계82) 농업정책국 도매시장관리과장
- 김진원(자치행정11) 청원구 북이면장
- 장미년(행정대학원) 서원구 산남동장
- 신민철(행정대학원)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 유현주(행정대학원) 청주오송도서관장
- 박영미(법무대학원) 서원구 수곡1동장
- 김동헌(산업대학원)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

충북대학교 개교 70주년 및 동문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友) 인(仁) 회(會)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재직 동문교수 일동



고문

심관섭(농학 51)
나기현(축산 51)
김지동(축산 52)
송석우(축산 59)
강신우(농학 61)
김주섭(토목 70)
장덕수(농기계 79)

자문위원

정상혁(임학60) 류태기(체육교육61) 김병동(체육교육64) 김태훈(화공70) 김운배(약학73)
연광석(농공64) 변상권(영어교육70) 박동준(영어교육73)
임창재(농학64) 임상화(약학70) 송범현(농학73)
정상길(농화64) 이종근(체육교육70) 박인성(행정대학원)
김내수(축산 68) 김광렬(화공71)
이 훈(축산63) 석영선(연초68) 한종구(국어교육72)
정동주(농학63) 조성찬(농공69) 최한기(체육교육72)



총동문회장
조 천 희



수석부회장
윤 양 택

회장단

회장 : 조천희(토목79) 수석부회장 : 윤양택(컴퓨터공82) 감사 : 김용은(과학교육72) 정삼균(경제95) 사무처장 : 황동민(안전87)

부회장

도종환(국어교육73) 윤종민(법학81)
김병우(국어교육76) 장선배(경제81)
박경국(농경 77) 최현호(법학81)
엄태영(화공77) 박종진(체육교육82)
김동구(농기계78) 신동엽(무역82)
김요식(화공78) 이광형(축산82)
김형근(경영78) 이인호(컴퓨터공82)
김두호(농생물79) 이장섭(국문82)
김진상(토목79) 장윤식(식품82)
송태영(행정79) 조성록(임학82)
이차영(행정79) 조용진(행정82)
조기식(무역79) 최석근(토목82)
최태호(임학79) 한만혁(수학교육82)
김수갑(법학80) 이종영(경영83)
박종서(토목80) 고근석(법학84)
이면재(약학80) 김동식(건축공84)
이진희(건축공80) 신태수(약학84)
이한목(경제80) 권민안(체육교육85)
최병윤(건축공80) 김정태(원예85)
황영호(행정80) 김철문(법학85)
김동완(중문81) 이범석(행정85)
김사석(체육교육81) 양승덕(의학85)
김진균(체육교육81) 임희종(건축공85)
박완배(법학81) 류근형(토목86)
배득렬(중문81) 박덕규(건축공86)
연경환(경제81) 유상용(약학86)

이영노(컴퓨터공82)
이재신(법학86)
심우용(경제87)
정희섭(건축공87)
변은영(정외88)
신효섭(행정88)
이현웅(도시88)
홍성민(의학90)
조성훈(사법90)
유용철(회계91)
홍종갑(법학91)
박완희(정보통신92)
박기수(농학93)
이전명(약학96)
장동석(제약96)
노동영(법학부97)
정종호(경영대학원)
김종복(산업대학원)
장수정(산업대학원)
조남훈(산업대학원)
권호택(산업대학원)
윤현우(산업대학원)
강병권(법학전문대학원)
배바라니(법학전문대학원)
윤종락(법학전문대학원)
정봉수(법학전문대학원)

상임이사

정노희(화공76) 김성만(임학85)
김일환(영어교육77) 김영관(사학85)
박결순(역사교육77) 서상택(농경85)
김정희(미술교육78) 안광국(토목85)
김길하(농생물79) 김은영(가정86)
노재승(농공80) 김학실(행정86)
우선희(농학80) 맹승진(농공86)
홍진태(약학80) 오세욱(토목86)
박세종(토목81) 권순동(경영87)
안효풍(경제81) 김태석(정외87)
유희재(토목81) 이범홍(무역87)
이기수(미술교육81) 금창섭(영문88)
김기동(생물82) 박성원(정외88)
김찬중(경영82) 박종배(회계88)
신의섭(철학82) 송창우(생물88)
신현구(경제82) 이종규(토목89)
이광희(농생물82) 홍기남(토목89)
이봉직(토목82) 서정욱(임학90)
이우범(국문82) 장석전(법학90)
이은봉(농학82) 김영주(전기전자91)
황운서(경제82) 박진희(국문91)
박철용(농학83) 최성호(축산91)
신진호(정외83) 허태영(통계91)
양영순(불문83) 황창호(경제92)
신희섭(경영84) 이준범(사법93)
임달호(경영84) 이호진(토목93)

김성만(임학85) 김영관(사학85) 안광국(토목85) 김은영(가정86) 김학실(행정86) 맹승진(농공86) 오세욱(토목86) 권순동(경영87) 김태석(정외87) 이범홍(무역87) 금창섭(영문88) 박성원(정외88) 박종배(회계88) 송창우(생물88) 이종규(토목89) 홍기남(토목89) 서정욱(임학90) 장석전(법학90) 김영주(전기전자91) 박진희(국문91) 최성호(축산91) 허태영(통계91) 황창호(경제92) 이준범(사법93) 이호진(토목93)

신광균(전기94) 김응운(경영96) 김철구(경영96) 이상훈(토목97) 김두환(기계98) 정승호(사회98) 최 울(토목03) 김선각(테크노경영08) 김현주(대학원) 윤병인(대학원) 구민형(경영대학원) 김경민(경영대학원) 박선옥(경영대학원) 변기철(경영대학원) 이강우(경영대학원) 허현주(경영대학원)



2020년도 임원회비 및 평생회비 납부명단

■ 회장 : 조천희 2,000만원

■ 부회장 : 50만원

김병우 박경국 엄태영 김동구 김요식 김형근 이차영 조기식
최태호 김수갑 박종서 윤인중 이진희 최병윤 김동완 김사석
김진균 박완배 신민철 윤종민 장선배 최현호 신동엽 이장섭
장윤식 조성록 최석근 이종영 김동식 고근석 김정태 김철문
이범석 양승덕 류근형 유상용 이영노 심우용 정희섭 변은영
홍성민 조성훈 홍종갑 박완희 박기수 이전명 정종홍 김종복
장수정 조남훈 권호택 윤현우 강병권 노동영

■ 수석부회장 : 윤양택 300만원

■ 상임이사 : 20만원

정노희 김일환 김정희 김길하 노재승 박세종 안효풍 이기수
김기동 김찬중 신의섭 신현구 이광희 이봉직 이우범 황운서
박철용 신진호 양영순 신희섭 김성만 김영관 안광국 김은영
김학실 맹승진 오세욱 권순동 김태석 이범홍 송창우 홍기남
서정욱 김영주 박진희 최성호 허태영 황창호 이호진 김응운
김철구 김두환 정승호 김선각 김현주 윤병인 구민형 박선옥
변기철 이강우 허현주

■ 평생회비 : 정재혁(대학원)

동문회비
납부안내

동문회비! 모교 사랑의 열매이며 동문회를 키우는 뿌리입니다.
은행에 가실 때 잊지 말고 동문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장학기금)를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시 성명 · 학과 · 입학년도 입력 요망!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이상

농협 301-0229-7165-71 (예금주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문의. 043-261-3121

국회의원 이장섭 (청주시 서원구)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고희(古稀)에 접어든 것인데, 사람이든 학교든 70년이라는 세월을 이어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인해서 뿔뿔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방대의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충북대학교가 지역사회에 70년을 뿌리내리고 지금까지 묵묵히 인재육성의 산실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음에 더욱 감사하고 애뜻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교직원들 비롯한 모든 충북대 구성원들이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세계로 꽃피울 충북대의 100년을 위해 어려운 앞날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입성 후, 1년 남짓의 의정 생활을 하셨는데, 보람됐던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속한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기 때문에 충북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안이나 사업을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학교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또 예산과 관련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민생과 지역발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성과들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청주도심관통 광역철도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안으로 반영시켜 청주시 지하철 시대를 향한 길을 열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부와 실무진 협의를 시작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한 교도소 이전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도제2산단을 건설하고 교도소 기존 부지에 배후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관련 입법으로는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해 충북 도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 구룡공원 등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심 공원을 지키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민생 관련 법안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는 중입니다.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SSM)' 관련 규제를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비수도권 위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혁신 촉진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이 환경을 넘어 경제와 문화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석탄발전량을 제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입법안을 연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대학생할 때 8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중후반까지의 대학가는 정의와 통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폭포처럼 분출되던 격동기였습니다. 그 시절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했듯 저 역시 이 땅의 지식인으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 할까요, 사명감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부응을 해서 저의 청춘을 모두 바치겠노라 하는 생각으로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강의실이든 독서실이든 잔디 위든 아스팔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당시 그 시대를 살아낸 수많은 대학생들이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다시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역동적인 시절이었지만, 저 스스로는 아주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대학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만성화된 지금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의 20대 입장이 되어 보지 않은 기성세대로서 선부른 위로와 조

섭니다. 그런데 역시 당장 내 앞에 닥쳐온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위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채용 시험 문제, 점수 산정 기준 및 응시자 본인점수 등 채용시험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선부른 말보다는 작더라도 이렇게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집중하고 싶은 의정 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약자들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사태 등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청년과 노년, 여성과 남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공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도면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청주 남부권 발전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어 청주교도소를 이전해 산단의 배후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최소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중장기 과제이지만, 임기 내에 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교에 대한 발전 구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산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충북대의 관련 학과들과 R&D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점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충북대학교의 역할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충북은 산업적으로 크게 보면 오송의 바이오와 오창의 IT로 나뉠 수 있는데 이 분야가 향후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갈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을 건네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사려 깊지 않은 위로, 원치 않는 조언은 때로 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곧 저의 책임이기도 해서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불안함과 위태로움을 조금 먼저 경험해 본 선배로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20대 청년들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희망을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제나 복지 등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을 너무 절대적 생존의 문제로 얽어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경제적 성취가 적더라도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자신감,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

고 공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충북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충북은 첨단 바이오산업과 이차전지·반도체·태양광·IT산업 등 4차산업 분야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충청권 메가시티와 행정수도 완성 등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부상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정치권과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코로나 이후 충북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을 빨리 간파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후배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니다. 충북이 이처럼 거대한 전환기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지역구인 청주 서원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두 가지 정도 굵직한 사업을

충북대가 지역에서 이 같은 핵심산업을 일으키는 데 연구와 인재 보급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북대가 올해 저의 소관 상임위 주무부처이기도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충북대가 이와 같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더 좋은 정부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문학적 측면에서도 대학에 기대하는 부분이 무척 큼니다. 해당 지역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을 갖춘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우리 충북대학교가 이 같은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충북도나 국가 정책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

일 자 : 21년 7월 2일(금) 방문자 : 박진희 편집위원

2021학년도 신입생 온라인 입학식

우리 대학은 3월 2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올해 우리 대학은 학부생 3,338명, 대학원생 1,225명 등 총 4,563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온라인 입학식 영상은 충북대 홈페이지와 유튜브 공식 채널에 게재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하였다.

입학식에서 의과대학 최재윤 학생이 신입생을 대표하여 입학선서를 하였고, 이어 조전희 총동문회장(토목공학과 79), 이상섭 국회의원(국어국문학과 82), 김병우 충북교육청교육감(국어교육과 76), 박기원 작가(미술교육과 85), 송재호 KT부사장(컴퓨터공학과 86), 방송인 조영구(회계학과 86) 등 각계의 동문들이 새로운 개신가족이 되는 신입생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하였다.

김수갑 총장은 “오늘부터 ‘당당한 충북대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신입생 모두 개신가족으로서 학문 탐구, 인격 도야로 미래의 희망찬 꿈을 가꾸길 바란다”며 “대학에서 생활하는 동안 마음껏 공부하고 젊음을 향유해 대학생으로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수갑 총장, 학생들과 70주년 기념 영상 함께 출연

우리 대학 김수갑 총장이 대학의 홍보를 위해 ‘B급 감성’연기에 몸을 던졌다. 권위적이라고 생각했던 총장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소위 ‘꼰대 교수’로 출연해 과거의 영광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랩과 춤을 선보여 화제다. 우리 학교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재학생, 동문, 교직원 등 전 구성원이 함께 시나리오 구상부터 음원 및 안무 제작, 출연까지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수갑 총장은 “코로나19로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 교정을 한 번도 밟아 보지 못한 신입생들을 위로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온 선배 세대를 대표해 직접 출연하게 됐다.”라며 “힘든 시기지만 잠시나마 함께 웃으며 우리 학교의 70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우리 대학 공동연구팀 연구 결과, New Phytologist 게재

생물학과 류호진 교수와 특용식물학과 조현우 교수 공동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식물학 분야 우수 학술지인 New Phytologist에 지난 2월 11일(목)자로 게재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식물의 2차 부피 성장 촉진을 위한 관다발 형성증진기세포에서의 옥신 신호전달 활성화 조절기작’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됐으며, 생물학과 이진수 박사(생물학과 09)와 김혜민 씨(박사 3년)가 제1저자로 참여했고, 류호진 교수와 조현우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고, 테라젠 이텍스 홍창표 박사, 통계학과 허태영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우리대학 연구팀 연구결과, New Phytologist 게재

지리교육과 교육기부 동아리 ‘지니어스’, 2020년 교육기부 우수동아리 선정

지리교육과 교육봉사 동아리 ‘지니어스’가 지난 2월 22일(월)자로 발표된 2020년 교육기부 우수동아리에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를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에 활동한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했다.

지니어스팀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19년 겨울방학 쏙쏙캠프에 참여해 세종시 쌍류초등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리교육과의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구성한 “1시간의 세계일주”, “우리 마음속의 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해 교육기부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기부에 참여한 지리교육과 학생은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학과에서 배운 다양한 전공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함으로써 예비 지리교사로서 실제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고 국립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지니어스, 2020년 교육기부 우수동아리 선정

LINC플러스 학생 스타트업 ‘95도씨’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최종 선정

LINC+사업단(단장 유재수) 창업동아리 출신 학생 스타트업인 ‘95도씨’ 2021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로 최종 선정됐다. 95도씨 팀은 의류학과 4학년 문찬영 학생을 대표로 조현진(의류학과 졸), 황예지(의류학과 4), 심민정(의류학과 4)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95도씨는 페인팅 자수 기술을 활용하여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신발’을 제공하는 ‘커스텀 신발’을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였다. 창업 이후 전국 최대 규모의 경진대회인 범부처 ‘도전! K-스타트업 2019’ 왕중왕전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교육부 ‘학생 창업유망팀 300’에 선정되는 등 재학 중 우수 창업 역량을 가진 팀으로 성장하여 지난 2월 제11기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해 5.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95도씨 문찬영 대표는 “충북대 LINC+사업단의 다양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지향적 실전 창업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었으며 특히 문제

해결에 대한 영감과 도전 정신을 일깨워 주신 창업교육센터 최유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청년창업사관학교 과정을 통해 고객과 시장 중심의 창업 아이템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LINC+사업단 유재수 단장은 “사업단 창업 교육을 통해 성장하여 성공 학생창업가의 꿈에 도전하는 95도씨 팀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LINC+사업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창업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 창업 인재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학교 LINC+ 창업교육센터는 교육부가 주최하는 전국 단위 창업 경진대회인 ‘학생 창업유망팀 300’에서 2018년부터 3년 연속 전국 대학 최다 팀을 배출하는 등 ‘대학 창업 교육을 통한 미래 창업인재 양성’을 전인하고 있다.



학생스타트업 ‘95도씨’ 청년창업사관학교 최종선정

수의학과 초더하리 씨, 2021 아시아 – 태평양 혈전지혈학회 최우수학술상 수상

수의학과 초더하리 프리티 쿠마리 (Chaudhary Preeti Kumari, 이하 초더하리, 박사 2년, 지도교수: 김수종) 씨가 지난 3월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 비대면 화상 발표로 진행된 ‘2021 아시아-태평양 혈전지혈학회’에서 최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초더하리씨는 “아레스틴3가 GPCR 탈감작을 통해 혈소판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Differential regulation of GPCR-mediated platelet activation by arrestin3)”이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상과 상금 500불을 받았다. 이 연구는 혈소판 활성화 과정에서 아레스틴3가 혈소판의 G 단백질 매개 수용체의 탈감작 및 혈전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특히 혈소판에서 GRK6, arrestin2, arrestin3의 GPCR 탈감작에 관한 상호 조절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BK21원헬스 미래수의학 교육연구단, 충북대학교 반려동물 중개의학 암센터(CATCC)의 지원을 받고 진행되었으며, 향후 새로운 혈전치료제의 개발 및 연구와 중개의학 분야 연구 선도모델 구축에 있어 수의학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121 아시아 – 태평양 혈전지혈학회 최우수 학술상 수상 수의학과 초더하리 (박사 2)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선정

우리 대학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특허청, 대학이 연계하여 지역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고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우리 대학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은 오는 2025년까지 총 67억 4000만원의 사업비(특허청 51억 5,000만원, 충북대 15억 9,000만원)를 지원받는다.

우리 대학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고, 충북 전략 산업인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IP기반 R&BD 가치 창출, 보호, 활용 전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바이오 헬스 등 첨단산업 및 기술에 대한 이해와 IP 법률에 대한 지식 기반을 IP 경영과 IP 빅데이터, IP 금융 5가지 섹터로 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교내 단과대학 간의 협력형 IP 융합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혁신 플랫폼 참여 대학과의 공동 교육 및 학위 운영과 지식재산 유관기관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식재산 교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타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달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대는 지역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대학-기업-기관 간 유기적 연계 체계 기반의 IP 교육혁신을 선도할 지식재산 교육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2021년 가을학기부터 바이오헬스, ICT 등 지역 내 국가 첨단산업 관계자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 융합교육을 진행해 충북이 국내 최고의 IP R&BD 교육 산실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하였다.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선정

도시공학전공 남호성 씨, 2021 한국 도시재생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도시공학전공 남호성(석사 1년, 지도교수 황재훈) 씨가 지난 4월 30일(금) 광주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도시재생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남호성 씨는 ‘문화·예술적 도시재생사업의 시기별 모니터링 지표 변화 분석 : 청주시 중앙동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을 제출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문화·예술적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청주시 중앙동 소나무길 일대를 대상으로 시기별 모니터링 지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영향 및 지속성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 한국도시재생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도시공학전공 남호성 (석사 1)

**충북대 G-테크벤처센터, 8년 연속
중기부 BI경영평가 '최고등급(S)'**

G-테크벤처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229개 창업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사업 BI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 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8년 연속' 최고등급('S')을 획득했다. 그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가 도내 17개 창업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BI운영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고등급('A')을 획득하여 명실상부한 우수 창업보육센터임을 입증했다. 이번 2020년 BI운영평가로 총 1,600만원의 지방 보조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으며, 이 사업비는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활성화사업에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성과는 중소창업기업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의 결과로 기업의 매출증대와 수출역량 강화, 고용인력 창출, 투자유치 활성화 등으로 이어졌다.



8년 연속 중기부
BI경영평가
'최고등급S'

**LINC플러스사업단, 4차연도
연차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이하 LINC+사업단)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4차연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성과를 거뒀다. 이는 3년 연속 최우수성과를 거둔 것으로 충북대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46.7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쾌거를 거뒀다. LINC+사업은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해 지역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현장 적응력이 높은 산업 수요 맞춤형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충북대 LINC+사업단은 지난해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공생형 산학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LINC+ 기술지원 종합체계 고도화로 기술이전/산업체 공동 연구 최고실적 달성 ▲'교육부 학생창업유망팀 300' 3년 연속 전국대학 최다팀 배출 ▲CBNU 황소(강소스타)기업 육성 지원체계 강화 ▲ICC 운영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 견인 ▲지역사회-대학이 공생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공헌 모델 내재화 ▲기업맞춤형 트랙 및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 등의 성과를 거뒀다. 충북대 LINC+사업단은 이처럼 지역 산업체/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부응해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대학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링크해주는 중심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유재수 단장은 "기업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LINC+사업단 참여 단과대학 및 우리 사업단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공생형 산학협력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INC+사업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기 LINC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진화형으로 대학을 변화시켰으며, 2017년부터는 2기 LINC+사업에 선정돼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해 지역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현장적응력이 높은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LINC+사업단
4차 연도 연차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

**2021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선정, 13년 연속 선정 쾌거**

우리 대학이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13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어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사업 운영 계획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속지원대학을 선정한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대입전형의 간소화, 대입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에 기여하고,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입준비 부담을 줄여왔다. 안병우 입학본부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구현을 위해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라며,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공교육 정상화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3년 연속
선정

**국어국문학과 유학생들, GKS외국인
우수 자비 장학생 2년 연속 선정**

국어국문학과 3학년이 재학 중인 안드레아(베네수엘라 국적), 레탄안(베트남 국적) 씨가 지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GKS 외국인 우수 자비 장학사업에 2년 연속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GKS 외국인 우수 자비 장학사업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부 자비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지속적 유학생 유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번 장학 사업에는 올해 총 25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GKS 외국인 우수 자비 장학생으로 선정된 안드레아, 레탄안 씨는 지난 3월부터 오는 2021년 12월까지 10개월간 매달 장학금 50만원씩 받는다. 정진섭 국제교류본부장은 "2년 연속 장학생으로 선정된 두 학생 모두 한국어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한다. 앞으로도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문과 유학생들,
2년연속 GKS우수
자비장학생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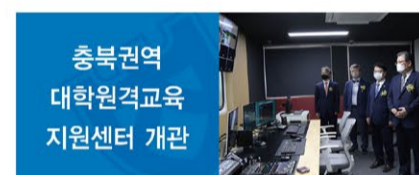
**방사광가속기 융합연구소 설립,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개발 힘쓴다**

우리 대학이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토대로 미래 대한민국을 선도할 연구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 융합연구소를 설립했다. 충북대학교 방사광가속기 융합연구소는 의학과 박우윤 교수를 초대 연구소장으로, 물리학과 신현준 교수를 부소장으로 임명하여 5월 27일(목) 방사광가속기 융합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충북대학교 방사광가속기 융합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에 구축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연구개발 사업 등 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방사광가속기를 토대로 대학,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방사광을 활용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수행, 국내·외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양성, 연구 성과의 활용·확산 등의 사업도 수행할 방침이다. 방사광가속기는 양질의 X-선을 발생하여 다양한 분야의 물질 분석 및 첨단과학의 연구 결과 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기존의 3세대 방사광가속기보다 한 단계 개선된 4세대 광원 X-선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예상된다. 충북대학교 방사광가속기 융합연구소는 연구소를 '기초과학연구센터·의료산업센터·제약산업센터·소재부품장비센터·Data Network AI 센터·산업기술융합센터·운영지원팀'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대학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추가 빔라인 설치도 제안할 예정이다.

충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개관

우리 대학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충북권 전역의 대학 원격교육 허브로서 원격교육의 질 제고에 앞장선다. 창의융합교육본부는 6월 3일(목) '충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김수갑 총장을 비롯해 컨소시엄교인 공병영 충북도립대 총장, 이문순 기획처장 겸 충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장, 조주연 충북도립대 권역센터장을 비롯한 대학 간 부진들과 관련 부서 교직원 등 약 20

여 명이 참여했다. 충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1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하는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선정되었다. 우리 대학은 충북권 전역의 대학 원격교육의 질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그간 축적한 실무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충북도립대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권역 내 대학과 전문대학을 연계·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충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형설관 3층 강의실을 리모델링해 비디오펠, 호리존, 크로마키, 전자칠판 등 다양한 형태의 강의 제작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스튜디오와 행정 지원을 위한 행정실 등을 구축했다. 충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앞으로 5년간 ▲충북권역 공동 활용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충북권역 공동 활용 원격강의 제작 인프라 구축·운영 ▲충북권역 공동 활용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대학 원격수업 혁신 지원 및 협력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충북권역 내 20개 대학의 고등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공동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수갑 총장은 "이번 권역센터 개관을 계기로 충북대학교가 대학원격교육지원 거점대학으로서 공유 및 협력 활성화를 통해 원격교육 내실화 기반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충북권역
대학원격교육
지원센터 개관

**건축공학과 이원석씨, 2021 한국건축
시공학회 최우수학술상 수상**

건축공학과 이원석(석사 2년, 지도교수 정운성) 씨가 지난 5월 20일(목)부터 5월 21일(금)까지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린 '2021 한국건축시공학회 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최우수학술상에 선정됐다. 이원석 씨는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 'PC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과 BIM 모델간의 효율적 부재 정보 교환을 위한 파라메트릭 디자인 모델링 기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원석 씨는 이 논문을 통해 BIM 기술의 활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효율적 생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 연구재단 이공 분야 지역대학 우수 과학자 지원 사업과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으로 이원석 씨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효율적 생산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IM을 활용한 프리캐스트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에 정진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 한국건축시공학회
최우수학술상 수상
건축공학과 이원석(석사 2)

[대선배와의 만남]

박 순 배 (약학66)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1966년 충북대학교 약대를 입학해서 73년에 졸업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약무국장으로 2005년 정년퇴임을 했으며 현재는 세연약국 대표약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교생활과 기억에 남는 것은?

66년 입학했을 때 데모 활동이 많았는데 저는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했어요. 공수특전단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당시 군부정권 반대하는 데모 활동이 있었고 저는 군에서 데모를 지지하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같은 대학생이고 같은 나이인데 반대 입장이 되어 데모저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생활을 하며 큰일을 해 보겠다는 생각에 총학생회장에 출마하여 60%가 넘는 득표율로 72년 제19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어요.

어떻게 약학대를 진학하게 되었나요?

저는 충북 음성 대소 출신으로 아버님께서 당시 약방을 운영하셨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던 당시 약대

를 졸업하고 약사를 하면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시는 아버님의 뜻을 받아들여 약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아버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내 삶 속에 탁월한 선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졸업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73년에 약대 졸업하고 종근당 신입을 거쳐 병원사업 본부장과 한국그라스 영업본부장을 했어요. 40대부터 회사 중역을 맡았고 종근당에서 근무할 때 유학을 보내줬는데 델라웨어대학교에서 마케팅 공부를 하기도 했고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델라웨어대학 동문입니다. 당시 마케팅을 배워 사회생활과 제약회사 경영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약무국장으로 2005년 정년퇴임하였고, 현재는 세연약국 대표약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근당 그라스, 건풍제약 사장 보령 제약에서 전무이사를 역임하고 연세

그라스에 근무시는 국제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여 수십개의 나라를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답고 보람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 성공하신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충북대학교는 국립대학교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가족과 모든이들과 더불어 성장해야지 혼자서는 안됩니다! 내 경험으로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운이 따라야 합니다 덕을 많이 베풀고 나눠야 운도 따르니 베풀며 사십시오.

결국 자녀들도 인생의 후배인데 그 또한 궁금합니다.

저는 2남 1녀의 자식이 있는데 나름대로 본인들의 역량을 키워가며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너희들도 아버지와 같이 약학 관련 길을 걷는 것은 어떠냐” 하니 본인 스스로의 길을 택하더군요. 이 또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이 내가 그랬듯 이렇게 해라 하는 강요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선택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때야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저는 후배님들께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많이 베풀면서 나누는 삶이 진정 아름답고 고마운 삶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부를 참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고향인 음성 대소와 모교인 청주고, 충북대학교 약대에도 기부를 조금 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대 동문회든 장학회든 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눔은 행운을 주고 내가 아니라도 가족들에게 복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자랑스러운 음성군민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교와 동문 여러분들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일 자 : 21년 7월 26일(월)
방문자 : 김두환 편집위원

세연약국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동문회관에 있으며 12명의 약사와 18명 스텝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형 약국이다.

박순배 동문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재경충북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경충북대 약대동문회장을 겸임하였다.

2018년에는 충북도민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런 충북인상'을 수상하였다.

충북대학교 개교 70주년 및 동문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제주대학교 재직 동문교수 일동

 임춘배 (미술교육77)	 한인덕 (건축공82)	 박종국 (의학85)	 정유남 (의학89)	 이용규 (건축공93)	 최희복 (건축공96)
 도경탁 (축산98)	 박수제 (미생물99)	 윤영미 (의전원08)	 최병진 (수학99)	 정만영 (미생물03)	 안창환 (수의06)

신/입/인/터/뷰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전자공학부를 올해 2월에 졸업한 SK하이닉스 NAND WT기술팀 이진우 TL입니다.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생각인가요.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의 마지막 한 마디는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다”였습니다. 내 역량을 쌓아 준 학교와 이를 신뢰하고 채용한 기업 덕분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학교와 지역사회, 기업에 보답할 시간이었으며, 책임감을 갖고 신뢰해 준 모두에게 보답하고 기여할 것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성공했어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정말 취업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공감하고 또 공감합니다. 분명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지만 오로지 내가 잘나서 취업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분명 운이 따라줬습니다. 그 이유는 내 꾸준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석하고 전공 교수님들에게 꾸준히 잘 배운 덕분입니다. 이 외에는 모두 행운이 따라줬습니다.

생각과 달리 실제 직장생활은 업무강도, 상사와의 관계 등 녹록치 않은게 현실인데 어려움 닦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가요.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꿔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강인한 마음가짐으로 날 믿고 극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땀 동료들과 함께 극복할 것이며,

“따로 또 같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모교 시절은 어떤 학창시절이었는데 얘기해 주세요.

모든 수업을 맨 앞자리에서 들었고, 교수님들은 가르침에 열정이 있었고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동아리도 축구동아리, 학술동아리 두 개나 들었습니다. 뭐든지 나서서 배웠습니다. 즐거웠고 행복했다. 마음 맞는 친구들이 많았고 학업, 취업 스트레스도 이런 친구들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말 그대로 빛나는 청춘을 즐겼던 학창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많이 힘든 시기이고, 충북대도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같이 극복해야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배움으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큰 배움을 얻을지 고민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며 어쩌면 지금의 위기가 우리 학교 변신의 기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역사회 대학교의 위기론이 대두되었지만 충북대학교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류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법을 찾으려면 담론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최근 중부매일신문과 충북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한 ‘위기의 지방대학,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 학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고 위기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일 자 : 21년 7월 29일(목)
방문자 : 김두환 편집위원



이진우 (전자공학부15)

동/문/인/터/뷰

충청북도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사학88)

〈충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최일선에서 이끌고 있는 이수현 충청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을 만나 코로나19 방역의 현장모습과 모교와 동문에 대한 바람을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련 접촉자를 찾아내고, 동선을 파악해 방역과 격리를 통해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전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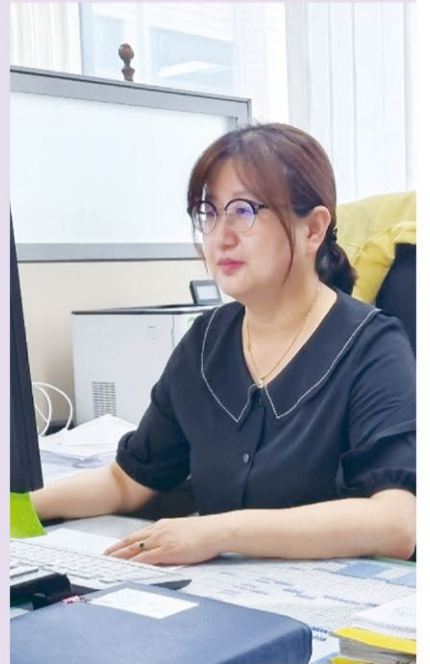
이 동문의 하루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밤사이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올 초 신설된 ‘감염병관리과’의 부서장을 맡은 뒤부터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현장을 누비는 것에서부터 각종 보고 자료와 통계자료를 챙겨 회의와 보고, 브리핑 등 모든 게 그의 책임이다. 이 동문은 “코로나19 방역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하다 보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중대본 회의, 발생 상황 판단의, 중앙회의 등이 이어진다”라며 “확진자 발생 시 충북도와 각 시·군의 역학조사관과 조사원들이 긴밀한 협의를 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접촉자들을 찾아 분리하는 등 다양한 민원과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께일 기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해 지역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가장 우선으로 백신접종을 꼽았다.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코로나19의 위험을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이유다.

이 동문은 “마스크 착용은 내가 먼저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인 만큼 답답하더라도 실내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라며 “미열과 코막힘 등 작은 의심증세가 보이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동문이 공직에 입문한 것은 1992년 1월이다. “주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걸 보고 같이 시작했고, 운 좋게 합격했다”는 이 동문은 “처음부터 공무원이 무엇인지 알고 사명감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성별과 학력 등에 대한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 동문은 “공직 초년병 시절 상급자들이



남자 동기공무원에게는 ‘000 주사’(현 주무관)라는 호칭을 썼지만, 자신에게는 ‘000 양’이라고 불러 부당함을 느끼고 당당히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다”라며 “단순히 호칭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상적인 꿈을 꾸던 학생에서 현실 속의 사회인이 겪은 경험을 통해 지금도 새내기 후배 공무원이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회고했다.

모교의 추억도 소환했다. 이 동문은 “입학한 해가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라 ‘올림픽 꿈나무’ 소리를 들으며 대학생활을 시작했다”라며 “인문대학 앞 잔디밭에서 선배, 동기들과 튀김과 도넛을 먹던 그 시절은 모두와 함께 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며 동문과 후배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외갓집에 가면 검은 보자기가 덮혀 있는 커다란 시루가 방구석에 있었습니다. 물을 주면 밀으로 빠지는데도 할머니는 계속 물을 주셔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보자기 안에서 콩나물이 씹씩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동문은 “우리가 갖는 시간은 콩나물에 주는 물인 것 같다”며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간 자체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깊고 무겁다고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동문은 마지막으로 “동문회가 졸업생과 재학생, 모교의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해 충북대가 충북은 물론 국내외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 자 : 21년 8월 4일(수)
방문자 : 장기우 편집위원

동문회보 편집위원회

- * 위원장 : 어강석(국문87)
- * 위 원 : 김영관(사학85) 장충덕(국문88) 장기우(교육90) 박진희(국문91) 김두환(기계98) 황동민(사무처장)

2023년 첨단암병원과 함께합니다

2006년 충북지역 단 하나뿐인 충북지역암센터가
2023년 암정복을 책임지는 **첨단암병원**으로 거듭납니다.



●●● 충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축하합니다 ●●●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국가 교육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약하는 충북대학교와 함께 하겠습니다.

— 충북대학교병원 임직원 일동 —